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울산광역시의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 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제목	처용이 돌아왔다
수상내역	장려상
작가	도경민
소재	처용, 역신, 박제상, 울산 12경(반구대 암각화, 대왕암, 몽돌해변 등)
기획의도	<p>울산의 여러 전설과 설화들 속에도 매력적인 영웅들이 많이 등장한다. &lt;처용이 돌아왔다&gt;는 그들이 팀을 이뤄 역신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통해, '울산판 어벤저스'를 그려내고자 한다.</p> <p>그리고 태화강, 반구대 암각화, 대왕암공원 등 울산의 여러 명소를 배경으로 하여, &lt;처용이 돌아왔다&gt;를 보는 이들에게 울산의 아름다운 명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p>
시놉시스	<p>&lt;기&gt; 저승에서 역신이 탈출하자, 박제상은 이승으로 내려와 대용을 찾아간다. 자신이 처용이 환생한 인간이란 것을 알게 된 대용은 역신과 맞서 싸우기로 한다.</p> <p>&lt;승&gt; 소환술사 태화, 변신 능력자 자의왕후 등, 함께 싸울 동료들을 모은 대용과 제상. 그들은 역신이 숨어있는 곳으로 향한다.</p> <p>&lt;전&gt; 모든 힘을 되찾은 역신에게 크게 패한 대용과 동료들. 설상가상으로 박제상까지 잃은 대용. 분노한 그는 각성하여 처용의 힘을 되찾게 된다.</p> <p>&lt;결&gt; 역신과 최후의 결전을 벌이는 대용. 역신을 물리치고 세상을 구한 대용은, 악인들로부터 울산의 안전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p>

## 처용이 돌아왔다

### S#1. 울산 앞바다, 개운포 (과거) -저녁-

화면 페이드인 되면, 울산 개운포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보인다. 사람들의 복식과 주변 풍경을 통해, 배경이 신라시대임을 알 수 있다. 쓰러진 이들의 몸은, 하나같이 붉은 반점 형태의 수포로 뒤덮여 있다. 끔찍하고 참혹한 모습.

그리고 붉은 망토를 입은 역신이 공중에 뜬 채 그 참혹한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 핏기 없는 창백한 피부, 뱀처럼 찢어진 눈과 붉은 눈동자를 지닌 역신의 모습은,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흉측하다. 손을 들어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붉은 기운의 두창(천연두) 독을 쏘아대는 역신. 독에 닿은 사람들은 피를 토하며 쓰러지고, 이내 몸엔 붉은 반점이 퍼진다. 그 모습을 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는 역신. 그런데 그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처용(소리)      역신, 네 이놈!

역신이 돌아보면, 머리엔 모란꽃과 복숭아 나뭇가지로 장식된 관을 쓰고, 파란 두루마기를 입은 사내, 처용이 공중에 뜬 채 역신을 노려보고 있다.

처용              (분노한) 내가 분명, 저승으로 돌아가라고 경고했을 텐데.

역신              이렇게 재밌는 놀이를 두고 따분한 저승으로 돌아갈 수야 없지.

역신의 목소리는, 마치 쇠가 부딪칠 때 나는 파열음처럼 소름 끼치고 귀에 거슬린다.

처용              그렇다면 내가 돌려보내줄 수밖에!

처용이 빠르게 손을 뻗자, 그의 손끝에서 푸른 불꽃이 나와 역신을 공격한다. 몸을 틀어 피한 뒤, 손을 들어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역신. 붉은 기운이 처용을 덮치려는 순간….

### S#2. 대용의 집, 방 안 (현재) -낮-

대용              으아아악!

괴성 지르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사내, **유대용**(25, 남). 이전 썬의 처용과 비슷한 외모를 지녔으나, 그보다 체구가 작고 어깨가 처져있어 힘이 없어 보인다. 대용이 입은 후줄근한 옷과 방에 놓인 가구들을 통해, 배경은 현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팔을 들어 얼굴에 흥건한 땀을 닦아내는 대용. 악몽을 꾸 탓인지, 얼굴이 창백하다. 그런 그의 얼굴 위로 선행되어 들리는 대용母的 목소리.

**대용母**(소리) (경상도 사투리) 뭐라꼬?

### S#3. 장생포고래박물관 내부 -낮-

박물관 안내원 복장을 입은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대용母.

맞은편엔 후줄근한 차림의 대용이 뚱한 표정으로 서있다. 두 사람이 서있는 곳은, 박물관 내의 거대한 고래뼈 모형 앞이다.

**대용母** (이전 썬 마지막 대사와 이어지는) 울산을 뜬다고...? 그래, 뜨면 어디로 갈 낀데?

**대용** (뚱하게) 서울.

**대용母** 하이고, 머스마야! 서울로 가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울산맨키로 살기 좋은 데도 읊다!

**대용** (버럭) 좋기는! 취직도 안 되고, 요새는 잠만 들었다 하면 이상한 꿈만 꾸는데...

**대용母** (의아한) 이상한 꿈? 무슨 꿈을 꾸는데?

**대용** 그... 처용이...

대용이 꿈에 대해 설명하려는데, 그때 대용母를 부르는 관람객의 목소리가 들린다.

**관람객**(소리) 여기요!

대용母가 돌아보면, 박물관을 둘러보던 관람객이 대용母를 부르고 있다.

**대용母** 네, 금방 갑니다이- (하고는 대용에게) 내 가야 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관람객을 향해 걸음 옮기는 대용母.

대용 (답답한) 뭘 나중에 얘기하는데- 내 울산 뜰 거라니까?

고래뼈 모형 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대용.

#### S#4. 골목, 음식점 앞 -낮-

고래고기 음식점들이 늘어선 골목. 대용이 주머니를 손에 찢러 넣은 채로 힘없이 걷고 있다. 그때 등 뒤에서 들리는 비명소리.

아줌마(소리) 도둑이야, 도둑!

대용이 놀라서 돌아보면, 얼굴에 복면을 뒤집어쓴 강도 셋이 대용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 오고 있다. 강도들 뒤를 뒤뚱거리며 따라오는 주인 아줌마.

아줌마 (대용에게) 학생! 그놈들 잡아라!

하지만 대용은 겁에 질려 벽에 바짝 달라붙으며 강도들에게 길을 터주고 만다.

강도1 (대용 앞을 지나치며, 비웃듯이) 땡큐.

다른 강도들도 킁킁 웃으며 대용 앞을 지나쳐간다.

아줌마 그걸 비켜주면 우야는데!

소리치곤 다시 뒤뚱거리며 강도들을 쫓아가는 주인 아줌마.

대용은 비참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볼 뿐이다.

대용 (혼잣말) 지긋지긋한 동네, 하루 빨리 뜨던가 해야지….

답답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대용.

그의 시선을 따라가 보면, 마치 그림처럼 맑고 청아한 하늘이 펼쳐져있다.

그 위로 떠오르는 타이틀, <처용이 돌아왔다>

#### S#5. 저승, 초군문 -낮-

타이틀 사라지고, 이전 씬 마지막 장면의 맑은 하늘 계속 이어진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로 펼쳐진 풍경은, 울산의 골목이 아니라 저승의 ‘초군문<sup>1)</sup>’이다.

그 위로 떠오르는 자막, ‘저승, 초군문’

초군문 앞엔 저승 안으로 들어가려는 망자(亡者) 여럿이 줄을 서있고, 우락부락한 수문장들이 그들을 하나하나 살핀 뒤, 안으로 들여보내고 있다.

초군문 안으로 펼쳐지는, 기이한 저승의 풍경들. 거리에 늘어선 집들과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 모두, 이승에선 볼 수 없는 기괴하고 신기한 모습들이다.

#### S#6. 저승, 지하감옥 앞 -낮-

네댓 명의 병사들이 견고해 보이는 철문을 지키고 서있다. 그 위로 떠오르는 자막, ‘저승 지하감옥’

#### CUT TO : 저승 지하감옥 내부 -낮-

두 명의 경비병이 창을 든 채 뭔가를 지키고 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물건은, 마개로 입구가 막혀있는 조그만 항아리다. 각 잡힌 채로 경계를 서다가, 항아리를 힐끗 쳐다보는 신입 경비병. 그 옆의 선배 경비병은 조금 풀어진 자세로 경계를 서고 있다.

**신입 경비병** 저, 선배님... (선배 경비병이 쳐다보면) 항아리를 왜 지켜야 됩니까?

**선배 경비병** 야, 신입. (목소리 깔며) 이걸, 보통 항아리가 아니야.

선배 경비병이 제법 심각한 표정으로 목소릴 깔자, 신입 경비병이 침을 꼴깍 삼키며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선배 경비병** 지금으로부터 수 천 년 전에, 역신이란 무서운 놈이 이승을 발각 뒤집어 놓았어. 왕, 귀족, 평민, 어린아이까지, 역신이 퍼뜨린 역병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었다고.

선배 경비병의 이야기에 점점 빠져드는 신입 경비병.

1) 죽은 자가 저승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저승의 문.

**선배 경비병** 근데 그때, 처용이라는 영웅이 나타나서 역신을 물리치고 그놈을 봉인시켜 버렸다, 이거야! 어디에? 바로, (항아리 가리키며) 이 항아리에.

자신의 뒤에 놓인 항아리를 두려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입 경비병.

**선배 경비병** 이런 중요한 항아리를 잘 지켜야겠어, 안 지켜야겠어?

**신입 경비병** (군기 바짝 든) 잘 지켜야 합니다!

**선배 경비병** 그래, 철통같이 지키고 있으라고. (구석으로 가며, 알뜰게) 난 피곤해서 눈 좀 붙이고 있을 테니까.

(시간 경과)

선배 경비병은 구석에 드러누운 채鼯아떨어져 있고, 신입 경비병 혼자 항아리 앞을 지키고 서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리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

**역신(소리)** 이봐….

신입 경비병, 자신을 부른 이를 찾기 위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역신(소리)** 여기야… 항아리 안.

자신의 뒤에 놓인 항아리를 돌아보는 신입 경비병.

**역신(소리)** 날 풀어주면… 엄청난 힘을 손에 넣게 해주지. 어때…?

항아리를 바라보던 신입 경비병의 눈이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한다. 뭔가에 홀린 듯, 항아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가는 신입 경비병.

**신입 경비병** (홀린) 엄청난… 힘…?

그때 자고 있던 선배 경비병이 눈을 뜨고, 항아리로 다가가는 신입 경비병을 발견한다.

**선배 경비병** (놀라서 소리치는) 안 돼!

하지만 신입 경비병은 이미 항아리를 막고 있던 마개를 뽑고야 말았다. 항아리 안에서 뿜어져 나온 검붉은 연기는 사람의 형체를 이루더니, 이내 역신의 모습으로 변한다. 이를 드러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는 역신.

**역신** (신입 경비병 보며) 고맙군.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줘야지.

그리고는 손을 뻗어 두창 독을 뽑어내는 역신. 신입 경비병은 독을 맞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다. ‘이야야!’ 선배 경비병이 기합을 지르며 역신에게 달려들지만, 이내 역신에게 목을 붙잡히고 만다. 역신의 손에 목이 붙잡힌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내는 선배 경비병.

**역신** (선배 경비병에게 얼굴 들이밀며) 이승으로 나가는 문은 어디지?

#### S#7. 저승 염라국, 삼도천 -낮-

저승을 흐르는 내천인 ‘삼도천’이 내려다보이는 정자. **박제상**이 머리에 상투를 튼 채로 앓은뱅이상 앞에 앉아있다. 읽던 책을 덮는 제상. 그 앞엔 은빛 관복을 입은 저승의 관리가 서있다.

**제상** (심각한) 역신이... 이승으로 도망쳤단 말씀이요?

**저승 관리** 예, 울산으로 도망쳐 몸을 숨겼다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선생께서 우릴 좀 도와주실 순 없겠습니까?

잠시 고민하다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제상.

**제상** (온화한) 물론 도와드려야지요. 오랜만에 고향땅을 밟고 싶기도 하구요.

#### CUT TO : 저승, 제상의 집

신라의 관리들이 입은 자주색 관복으로 갈아입은 박제상. 진지한 태도로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그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저승의 관리.

**저승 관리** (걱정스러운) 막을 방도는 있겠습니까?

제상                역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이가, 딱 한 명 있지 않습니까.

저승 관리        (누구지? 생각하다가) 혹시, 처용 말씀이시요? 처용 처사는 이미 오래 전  
                      죽은 걸로 알고 있소만….

제상                현세에 인간으로 환생하여 다시 돌아왔소. (빙긔 웃으며) 그와 함께, 역신을  
                      물리칠 것이요.

### S#8. 이승, 대용의 방 -저녁-

대용이 방 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바닥에 늘어놓고 짐을 싸고 있다. 커다란 상자 안에 책, 전자기기 등을 쭉서 넣는 대용. 그때 대용의 등 뒤에서 제상의 목소리가 들린다.

제상(소리)        떠날 준비를 하시나 보오.

갑자기 들려온 소리에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돌아보는 대용. 뒤에 서있는 제상을 발견하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는다.

대용                (겁에 질려) 누, 누, 누구야, 당신? 여긴 어떻게 들어왔어?

제상                (태연하게) 반갑소, 처용 처사. (예를 갖추 인사) 신라의 대아찬<sup>2)</sup> 박제상이라  
                      합니다.

제상의 말을 무시하고, 바닥을 더듬어 핸드폰을 집어 드는 대용. 제상의 눈치를 보며 ‘112’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누르려는데….

제상                요즘 전생의 기억들이 떠올라, 처사의 머릿속을 어지럽히지 않습니까?

멈칫하고 제상을 돌아보는 대용.

### (시간 경과)

침대에 걸터앉아있는 대용. 제상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바닥에 앉아있다.

대용                (황당한) 그러니까… 아저씨가 진짜로, 몇 천 년 전에 죽은 신라의 충신

<sup>2)</sup> 대아찬(大阿飡). 신라시대의 관등으로서, 17개의 관등 중 다섯째 관등이다.



박제상이라고요…?

**제상** (정중하게) 그렇습니다.

**대용** (기가 차는) 그리고, 저는 처용이 환생한 몸이고… 역신이란 놈을 막기 위해선 제 도움이 필요하단 얘기죠? (자기가 말하고도 어이없어서 웃는)

**제상** 정확하오. 오직 처용 처사만이 역신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CUT TO : S#1. 울산 앞바다, 개운포 (과거)**

대용이 꿈에서 본 자신의 전생의 기억. 역신이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처용에게 달려든다.

**CUT TO : 대용의 방 (현재)**

역신의 모습을 떠올리곤 표정이 굳는 대용.

**대용** 전 못해요. 아저씨가 한 얘기가 다 맞는다고 쳐도, 내가 어떻게 그 괴물 같은 놈이랑 맞서 싸웁니까? (고개 저으며) 죽어도 못해요.

**제상** (난처한) 하지만 처사… (하는데)

**대용** (말 자르며) 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제상** (자리에서 일어서며) 알겠소. 하지만 처용 처사가 자신을 외면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들이 다치고 목숨을 잃을 지… 잘 생각해보시오.

**CUT TO : S#1. 울산 앞바다, 개운포 (과거)**

온몸에 붉은 반점이 퍼진 채 괴로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CUT TO : 대용의 방 (현재)**

그 참혹한 모습 떠올리고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는 대용.

제상이 뒤돌아서서 대용의 방을 나서려는데….

**대용** 알았어요, 할게요.

**제상** (돌아보며, 얼굴 밝아지는) 뭐라 하셨소, 처사?

**대용** (에라, 모르겠다) 돕겠다구요. 역신인가 뭔가 하는 놈 때려잡는 거.

그 얘길 듣자마자, 얼른 달려와 대용의 손을 잡는 제상.

**제상** 고맙소, 처용 처사. 참으로 고맙소.

대용 (손 슬그머니 놓으며) 아뇨, 뭐…. 근데 역신은 어떻게 찾아요?

품에서 나침반처럼 생긴 조그만 기구를 꺼내는 제상. 기구의 바늘이 빙글빙글 돌더니, 이내 한 방향을 가리킨다.

제상 이 바늘이 가리키는 곳이, 바로 역신이 몸을 숨긴 곳이지요.

대용 그럼, (걱정 가득한 표정) 지금 바로 가요?

제상 (미소 짓는) 그럴 리가요. 함께 싸울 동료들을 모아야지요.

### S#9. 가지산 동굴 입구 -밤-

울창한 숲 사이로 보이는 동굴 입구. 동굴 안에선 불길한 붉은 기운이 새어나오고 있다.

### CUT TO : 가지산 동굴 안 -밤-

빛이 들지 않아 어두컴컴한 동굴 안. 역신이 동굴 가운데 우두커니 선 채 붉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 동굴 밖으로 새어나간 붉은 빛의 정체는, 역신이 뿜어낸 두창 독이었던 것. 동굴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있던 박쥐들, 붉은 기운에 닿자마자 땅으로 떨어져 죽어 버린다. 역신은 손을 뻗어 붉은 기운을 쏘아낸다. 역신이 쏘아낸 붉은 기운은 인간의 형체를 이루더니, 이내 역귀<sup>3)</sup>로 변한다. 역귀는 인간의 형체를 하고 있으나, 피부가 온통 붉은 데다 뿔죽한 코와 귀를 지닌 징그러운 모습이다.

역신은 다른 역귀도 소환하려 하지만, 웬일인지 그가 뒤이어 쏘아낸 기운들은 인간의 형상을 이루지 못하고 흩어지고 만다. 인상을 찌푸리는 역신. 그새 처음 소환해낸 역귀, 심마가 역신에게 다가와 머릴 조아린다.

심마 (감격에 겨워) 돌아오셨습니까, 역신마마! 역신마마의 영광을…. (하는데)

역신 (손 들어서 심마의 말 끊으며) 그만!

놀라서 얼른 입을 닫고 역신의 눈치 살피는 심마.

역신 너무 오래 간혀있었던 탓에 아직 힘이 온전치 않다…. 역귀들을 소환해낼 힘조차 남아있질 않구나….

3) 역신을 따르는 귀신들. 역신의 명을 받아, 인간을 공격하고 역병을 퍼뜨리는 역할을 한다.

걱정 어린 표정으로 역신을 바라보는 심마.

**역신** 하지만! 힘을 되찾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힘을 되찾는 순간, (소름 끼치는 미소) 온 세상은 역병으로  
물들고 역귀의 세상이 찾아올 것이다!

**심마** (바닥에 넙죽 엎드리며) 역신마마 만세!

**역신** 분명 저승에서 나를 막을 휘방꾼을 내려 보냈을 터…。 심마 너는 내가 힘을  
되찾을 동안, 휘방꾼을 살피고 나를 보호하라.

**심마** 예, 역신마마. (다시 넙죽 엎드리며) 역신마마의 영광을 위하여! 역귀의  
세상을 위하여!

‘크하하하!’ , 소름 끼치게 웃는 역신.

#### S#10. 태화강 상류 -아침-

태화강 강변에 서있는 대용과 제상. 강 맞은편엔 반구대가 보인다.

**제상** (반구대 바라보며) 강을 건너가야 할 터인데….

**대용** 아저씨, 반구대로는 못 가요- 접근도 금지돼있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때, 강변에 놓여있는 낡은 나룻배 하나가 제상의 눈에 들어온다. 눈을 반짝이는 제상.

#### S#11. 태화강, 반구대 앞 -아침-

제상과 대용이 나룻배를 탄 채 열심히 노를 젓고 있다. 제상은 쉽게 노를 젓는 반면,  
대용은 힘들어 죽겠다는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다. 이내 뱃머리가 반구대에 닿는다.  
반구대엔 호랑이, 멧돼지, 고래, 사람 등을 그린 암각화가 새겨져있다.

**대용** (숨 몰아쉬며) 아니, 여기에 무슨 같이 싸울 동료가 있단 거예요?  
(주변 살피며) 아저씨,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돌아갑시다.

하지만 대용의 말은 들은 척도 않고 암각화를 유심히 살피고 있는 제상. 이내 뭔가 발견한  
듯 표정이 밝아진다.

제상                    여기 있군.

제상이 발견한 것은 춤추는 주술사를 그린 암각화다. 품에서 꺼낸 부채를 펼치더니, 부채로 주술사 그림을 두드리는 제상. 대용은 그 모습을 황당하게 바라보는데, 갑자기 그림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놀란 표정으로 눈을 가리는 대용.

대용이 눈을 가렸던 손을 치우자, 눈부신 빛은 사라지고 30대 중반의 외모를 지닌 한 사내가 반구대 위에 걸터 앉아있다. 짐승의 털로 만든 옷을 걸치고 있고, 길고 지저분한 머리는 한데 묶은 채 손엔 오동나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사내, 선사시대의 소환술사 태화다.

제상                    (고개 숙여 인사) 선사시대부터 이 나라를 지켜 오신 소환술사 태화님께 인사드립니다. 신라 대아찬 박제상이라 합니다.

태화                    충신 중의 충신이라는 공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현대... 그런 공이 날 찾아온 연유가 무엇이오?

제상                    ...역신이 돌아왔습니다.

태화                    (놀라며) 역신이?

고개 끄덕이는 제상. 태화의 표정이 심각해진다.

태화                    역신이라... 역신은 만만치 않은 놈이요. 놈을 물리칠 묘수는 있소?

제상                    (대용 가리키며) 여기 있습니다, 역신을 물리칠 묘수.

대용은 나룻배 위에 멀뚱멀뚱 서있고, 태화 역시 그런 대용을 멀뚱멀뚱 바라본다.

태화                    (의아한) 저 자는, 공께서 부리는 하인이 아니오?

제상                    (미소 지으며) 오해를 하셨군요. 이 분은 제 하인이 아니라 처용 처사입니다.

대용을 바라보다가, 이내 ‘크하하하!’ 웃음을 터트리며 마는 태화.

태화                    (웃으며) 아니, 이 불품없는 자가 처용이란 말이오? 박제상 공... 농담이 너무 지나치신 것 아니시오? 이 자에게 말기느니, 나 혼자서 싸우겠소.

제법 높은 반구대 위에서 뛰어내려 나룻배 위로 착지하는 태화.

태화            역신은 어디 있소? 안내하시오.  
 제상            아직 싸울 때가 아닙니다. 동료가 더 필요합니다.  
 태화            (의아한 표정으로 보는)  
 제상            역신을 상대하려면... 용 정도는 있어야겠지요.

누군지 알겠다는 듯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태화.

### S#12. 가지산 동굴 -낮-

동굴 바닥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역신. 붉은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다. 그 옆엔 심마가 서있고, 동굴 벽엔 박제상과 대용이 태화를 만나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다. 마치 빔프로젝터를 사용해 재생시킨 영상 같다.

역신            (가부좌 뜬 채) 박제상과 태화라.... (코웃음) 저 따위 조무래기들로 날 막겠다고? 가소롭기 짝이 없구나! (영상의 대용 보며) 저 놈은 누구지?  
 심마            박제상이 부리는 하인인 듯합니다.  
 역신            하찮은 놈이구나. 멍청한 것들.... 처용이 아니면 날 막을 수 있는 자는 없거늘!

말을 마치고 손을 뻗어 붉은 기운을 쏘아내는 역신. 그가 쏘아낸 붉은 기운이 요동치더니, 한 번에 스무 마리의 역귀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역신을 향해 엮드리는 역귀들.

역신            (만족스럽게) 온전한 힘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았구나.  
 역귀들          (일제히 외치는) 역신마마 만세! 역신마마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모습 바라보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짓는 역신.

### S#13. 파래소 폭포 -낮-

높은 곳에서부터 폭포수가 떨어져 내리는 파래소 폭포의 절경. 태화, 제상, 대용 세 사람이 그 앞에 서서 폭포를 바라보고 있다.

대용                여기에 동료가 있는 거예요?  
 제상                아닙니다. 동료를 불러내기 위해 필요한, 귀한 물건이 있는 곳이지요.  
 태화                (앞으로 나서며) 파래소 선녀 계시는가?

그러자 폭포가 양 옆으로 갈라지며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난다. 그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는 대용. 파래소 선녀는 물 위를 사뿐사뿐 걸어 세 사람 앞으로 다가온다.

파래소 선녀        절 부르셨습니까?  
 제상                예, 만파식적을 찾으러 왔습니다.

파래소 선녀가 손짓하자, 수면 아래서 물 위로 떠올라 허공에 멈추는 만파식적.

파래소 선녀        하지만 만파식적은 오래 전 처용 님께서 맡기신 물건입니다. 그 분 외에 다른 분은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태화                (성큼성큼 걸어오며) 쓸 데 없는 얘기 말고 비켜서시게.

태화가 기세등등하게 만파식적을 잡으려는 순간,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밀어낸다. 소리 지르며 날아가더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널브러지는 태화.

대용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제상이 대용에게 손짓한다. 겁에 질린 얼굴로 만파식적을 향해 걸어가는 대용. 눈을 질끈 감고는 허공에 떠있는 만파식적을 잡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파래소 선녀        (고개 숙여 예를 표하는) 진정, 처용 님이시군요.  
 태화                (투덜대며) 처용은 무슨 처용….

만파식적을 손에 든 채 어안이 병병한 표정으로 서있는 대용.

#### S#14. 대왕암공원 -저녁-

울기등대 주변으로 해송들이 뻗뻗하게 서있고, 그 앞으론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다. 바다 위엔 수많은 바위섬들이 보이는데, 그 중엔 용 모양을 한 대왕암<sup>4)</sup>도 보인다.

4) 신라 문무왕의 왕비가 묻혔다고 알려진 바위. 문무왕이 바다에 묻혀 용이 되자, 자의왕후도 남편의 뒤를 따라 바다에 묻힌 뒤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대왕암공원에서 대왕암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상, 태화, 그리고 대용. 제상이 만파식적을 입에 대고 연주하기 시작한다. 아름다운 피리 소리가 이어지고... 곧 대왕암 주변으로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다. 대용은 안개 너머를 살피는데, 그 순간 안개를 헤치고 거대한 용 한 마리가 나타난다!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는 대용.

용은 세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고급스러운 예복을 차려 입고, 머리엔 금관을 쓰고 있는 **자의왕후**가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를 보곤 고개 숙여 예를 표하는 제상. 대용 역시 얼른 고개 숙여 인사한다.

**자의왕후** (우아하게) 나라에 무슨 변고가 있기에 만파식적을 불러 저를 깨우신 건가요? (태화 발견하고) 태화 술사님까지 나섰다면 보통 일은 아닐 테지요?

**CUT TO : 대왕암공원, 송림 -저녁-**

대나무숲에 둘러앉아있는 네 사람.

**자의왕후** (심각한 표정) 역신이 돌아왔다구요? 그리고... (더 심각한 표정으로) 이 자가 처용이고, 함께 싸워야 하는 동료라구요? (제상 보며, 단호하게) 전 반대예요. 이 자는 우리 싸움에 오히려 짐이 될 겁니다.

**대용** (우물쭈물) 아니, 짐이라니 그건 너무... (하는데)

**태화** 아니! 나도 틀린 말이라 생각진 않소. (대용에게) 당신, 다룰 줄 아는 무기 있으시오?

**대용** 없어요...

**태화** 그럼 소환술이나 변신술 같은, 특별한 능력이 있으신가? 아니면 뛰어난 지략을 지니셨소?

**대용** (목소리 기어드는) 아니요...

**태화** 그렇다면, 역신과 싸우는 데 전혀 필요가 없지 않소!

**제상**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면) 처용 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입니다. 처사가 없다면 아무리 대단한 능력과 뛰어난 작전이 있더라도 역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대용 보며) 처사만이 역신을 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그 애길 들은 자의왕후, 잠시 고민하다 입을 연다.

**자의왕후** 그렇다면... 함께 싸울 수밖에 없겠군요.

제상 (태화 보며) 태화 술사께서도 함께 싸워주시겠지요?  
 태화 (탐탁지 않은) 뭐... 다른 수가 없지 않소.  
 제상 (빙긔 웃으며) 그럼 날이 밝는 대로, 역신이 몸을 숨긴 곳으로 출발하도록 하지요.  
 대용 지금 바로 가는 게 아니구요?  
 제상 음침하고 사악한 무리들은 빛을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날이 밝은 뒤에 싸워야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고갤 끄덕이는 대용.

그런데 누군가 숲에 숨어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훑쳐보고 있다. 역신의 수하인 심마다. 놀란 표정의 심마.

#### S#15. 가지산 동굴 -저녁-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고 있는 역신. 그를 감싸고 있는 붉은 기운은 더욱 커졌으며, 동굴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 역귀들의 수도 늘어났다. 그때 들리는 심마의 목소리.

심마(소리) 역신마마!

동굴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심마, 역신 앞에 엎드린다.

심마 (숨 헐떡이며) 역신마마, 큰일... 큰일이 났습니다.  
 역신 (여전히 눈 감은 채) 무슨 큰일이 났단 말이냐?  
 심마 그제... 처용이,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역신 (눈 번쩍 뜨며) 그제 무슨 말이냐, 처용이라니?  
 심마 (역신 눈치 살피며) 박제상을 따라다니던 하인 놈이... 처용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환생한 듯합니다.  
 역신 (벽력같이 소리치는) 이 멍청한 놈! 그걸 이제 알아냈단 말이냐!

역신이 소리치자 지진이 일어난 듯 동굴이 흔들리고, 놀란 역귀들이 바닥에 엎드린다.

심마 (덜덜 떨며) 죽여주십시오!  
 역신 (화 억누르며) 아니다, 아니야... 내가 힘만 온전히 되찾으면 처용 따윈



상대도 안 될 터….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힘을 되찾을 것이다.  
심마, 그 전까지 동굴 주변을 철통같이 지켜라!

심마 예! (역귀들에게) 가자!

기괴한 소리를 내며 심마를 따라 동굴 밖으로 나가는 역귀들.

역신 오너라, 처용. 이번엔 내가 네놈을 죽여줄 테니….

### S#16. 간절곶 -밤-

해안가에 앉아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대용. 제상이 다가와 대용의 옆에 앉는다.

제상 처용 처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십니다.

대용 내일이면 그 무시무시한 놈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제상 보며) 아저씨, 제가 정말 역신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제상 처사. (바다 바라보며) 여기에 왜 간절곶이란 이름이 붙은 줄 아시오?

대용 (고개 저으며) 아뇨, 왜 간절곶인데요?

제상 먼 바다에서 본 모양이 긴 간짓대처럼 생겼다하여 그리 부르기도 하지만, 이곳에서 뭔가를 간절히 염원하면 이뤄진다고하여 간절곶이라 부른다 합니다. (특유의 미소 지으며) 처사가 역신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하길 간절히 원한다면, 분명 이뤄질 겁니다.

제상의 말에 용기를 얻은 듯, 희미하게 미소 짓는 대용.

### S#17. 가지산 입구 -아침-

가지산을 오르는 등산로 입구에 서있는 네 사람. 제상이 들고있는 나침반의 바늘이 가지산을 가리키고 있다.

제상 이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군요.

자의왕후 그 사악하고 어두운 자가, 가장 먼저 해가 뜬다는 가지산에 몸을 숨기다니…. 우스운 일이군요.

**태화** (앞장서며) 자, 그럼 역신놈 잡으러 들어가시지요. (가다가 뒤돌아보며, 대용에게) 처용 씨! 당신은 도망 다니다가 마무리나 잘 하시고.

입을 삐죽이며 가지산 입구로 들어서는 대용.

### S#18. 가지산 중턱 -낮-

사방을 경계하며 산을 오르고 있는 네 사람. 요상하게 생긴 석상들 여럿이 모여 있는 공터에 다다른다.

**대용** (석상을 만지며) 거 참 되게 못생겼네-

하는데, 그 순간 대용을 공격하는 석상! 태화가 쏜살같이 달려들어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낸다. 대용을 공격한 석상이 심마의 모습으로 변하고, 다른 석상들도 역귀의 모습으로 변하며 움직이기 시작한다. 역귀들이 석상으로 변신해 몸을 숨기고 있었던 것. 40마리쯤 되는, 제법 많은 수의 역귀들이 네 사람을 포위하기 시작한다.

각자의 무기를 꺼내들며 전투를 준비하는 태화, 자의왕후, 제상. 대용은 세 사람의 뒤편으로 몸을 숨긴다.

**태화** (역귀들 둘러보며) 역신놈은 안 보이고 조무래기들만 득실대는구나.

**심마** 감히 역신마마를 들먹이다니, 죽고 싶은 모양이군. (역귀들에게) 공격하라!

네 사람에게 달려드는 역귀들. 제상은 부채를 휘둘러 역귀들을 때려눕히며 대용을 보호하고, 자의왕후는 한쪽 팔만을 용의 팔로 변이시킨 채, 입에서 불을 뿜으며 역귀들과 맞선다. 태화는 지팡이로 역귀들을 때려눕히다, 지팡이를 한 번 크게 휘두르자 빛이 번쩍이며 멧돼지가 나타난다. 역귀들에게 맹렬히 돌진하는 멧돼지. 세 사람의 공격에 역귀들은 맥을 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만다.

한편, 대용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감탄스러운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

### S#19. 가지산 동굴 -낮-

여전히 가부좌를 튼 채 눈을 감고 있는 역신. 그의 몸을 에워싸고 있던 붉은 기운이 폭발할 듯 요동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내 역신의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붉은 기운. 순간,

역신이 눈을 번쩍 뜬다.

역신 (이를 드러내며 웃는) 기다려라... 처용.

## S#20. 가지산 중턱 -낮-

역귀들과 영웅들 간의 첫 번째 싸움은 싱겁게 끝났다. 역귀들은 모두 쓰러졌고, 남은 역귀는 심마뿐. 태화가 심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난데없이 붉은 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는다. 불안한 시선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네 사람. 붉은 구름이 태양을 가린 탓에, 주변은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인다. 그리고 이내 구름이 갈라지며, 역신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치 신선처럼 붉은 구름 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는 역신.

역신 (가소롭다는 듯) 나 하나 잡으려고 왕비까지 나서다니, 몸 둘 바를 모르겠군 그래. 그리고... 처용.

나무 뒤에 숨어있던 대용이 화들짝 놀란다.

역신 (살벌한) 너에겐 갇아줄 빛이 있지, 아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말을 마치고 손을 뻗는 역신. 그러자 붉은 구름에서 수십 마리의 역귀들이 나와, 아래로 뛰어내린다. 역신도 그 뒤를 따라 땅으로 내려온다. 다시 맞붙는 역귀들과 영웅들.

자의왕후는 거대한 용으로 변신하여 역귀들에게 불을 뿜고, 태화는 호랑이, 멧돼지 등의 맹수를 소환하여 역귀들을 공격한다.

한편, 제상은 사방에서 공격해오는 역귀들을 때려눕히며 대용을 보호하느라 정신이 없다. 제상 뒤에 숨어 이리저리 피하기 바쁜 대용.

역신은 전투를 지켜보며 가소롭다는 듯 웃고 있다.

역신 고작 이 정도로 나를 잡겠다고 덤벼들었던 말이나? 처용은 도망 밖에 칠 줄 모르는 겁쟁이가 아닌가? 가소롭다, 너무도 가소롭다!

역신이 손짓을 하자, 붉은 구름이 모여들더니 붉은 용으로 변한다. 용으로 변신한 자의왕후에게 두창 독을 뿜어내는 붉은 용. 자의왕후가 땅으로 곤두박질치고, 이내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만다.

이번엔 대용을 향해 손짓을 하는 역신. 그러자 붉은 화살이 대용에게 날아가는데, 제상이 몸을 날려 붉은 화살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낸다. 기침을 하며 울적, 피를 토해내는 제상.

**대용**                아저씨! (제상 부축하며) 아저씨, 괜찮아요?

**제상**                난 괜찮소, 처사. 어서... 어서 빨리 피해야 합니다.

역신이 대용을 노리고 다가오는데, 태화가 그런 역신의 앞을 막아선다.

**태화**                (제상에게) 박제상 공, 이놈은 내가 말을 테니 처용을 데리고 도망치시오!

태화가 손짓하자,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와 제상과 대용을 자신의 등에 태운다. 쏜살 같이 달려 전장을 빠져나가는 호랑이.

역신이 그들을 뒤쫓으려 하지만, 이번에도 태화가 역신의 앞을 막아선다.

**태화**                안 되지. (씩 웃는) 넌 나랑 놀아야지.

**역신**                네놈이 명을 재촉하는구나!

손을 들어 붉은 기운을 쏘아내는 역신. 태화가 지팡이를 휘둘러 가까스로 공격을 막아낸다. 힘겨워 보이는 태화.

## S#21. 울주군, 망해사 근처 -저녁-

대용과 제상을 등에 태운 채 빠르게 달리고 있는 호랑이. 주변의 풍경들이 쏜살같이 스쳐 지나간다. 대용은 고개를 돌려 뒤에 앉아있는 제상의 상태를 살피는데, 제상의 얼굴에 붉은 반점이 번지기 시작한다. 정신을 잃기 직전인 제상.

**대용**                (놀라서) 아저씨!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조금만 더 참아요. 네?

저 멀리 망해사<sup>5)</sup>가 보인다.

---

5) 울산 울주군에 위치한 사찰. 신라의 헌강왕이 동해 용왕을 위해 망해사를 지으니, 용왕이 자신의 아들인 처용을 보내 헌강왕을 돕도록 했다는 설화가 전해져 내려온다.

## S#22. 망해사 대웅전 -저녁-

중앙엔 불상이 놓여있고, 벽엔 처용설화에 관한 벽화가 그려져 있는 망해사 대웅전. 대웅과 제상을 태운 호랑이가 안으로 들어와 두 사람을 내려놓는다. 몸을 숙여 인사하고는, 다시 밖으로 사라지는 호랑이.

대웅은 제상을 바른 자세로 눕히고는 얼굴을 살피는데, 웬일인지 제상의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다.

**대웅** 아저씨. (목소리 떨리는) 왜, 왜 이러는 거예요? 아저씨 전에 이미 죽었던, 불사의 몸이잖아요? 다시 죽진 않는 거죠? 그렇죠?

걱정 말라는 듯, 힘겹게 미소 짓는 제상.

## S#23. 저승 염라국, 제상의 집 (과거) -저녁-

S#7 직후의 상황. 관복을 차려입은 제상이 집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그를 부른다.

**제상 부인(소리)** 여보.

제상이 돌아보면, 그의 부인이 눈물이 뿔뿔한 얼굴로 문가에 서있다.

**제상 부인** 역신에게 당하면 혼이 사라질 수도 있단 얘기... 사실인가요?

**제상** 그렇소. (얼른 덧붙이는) 하지만 걱정 마시오, 아무 일 없을 테니.

**제상 부인**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울먹)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눈물 흘리며) 왜 위험한 일을 도맡아서 하시는 겁니까, 대체 왜요!

**제상** (부인 묵묵히 바라보다) 그제, 이 나랏 구하는 길이지 않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왜국에 갔던 나요. 이번엔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하는 일인데, 어찌 내 몸을 사릴 수 있겠소. (특유의 미소 지으며) 내 곧 돌아올 터이니 기다려 주시오, 부인.

말을 마치고 돌아서는 제상. 제상의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가는 제상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 S#24. 망해사 대웅전 (현재) -밤-

다시, 현재. 바닥에 누운 채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는 제상. 그의 모습이 점점 더 희미해져간다. 그 옆에 앉아 걱정 어린 눈으로 제상을 바라보고 있는 대용.

**대용** (울먹이며) 안돼요, 박제상 아저씨.... 안돼요.

**제상** (대용의 손잡으며) 처용 처사.... 처사에게 큰 짐만 안겨주고 가는 것 같소....

**대용** (고개 저으며) 그런 말 하지 말고 제발 기운 차리라고요.... 네?

**제상** (숨소리 점점 거칠어지는) 처사.... (손 꼭 잡는) 부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해주시오. 부탁... 부탁드립니다.

제상이 말을 마치자, 그의 형체가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만다. 얼굴에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대용.

**대용** (짐승처럼 울부짖는) 으아아아!

대용이 울부짖는 소리에 대웅전이 찌렁찌렁 울린다. 그러자 그 순간, 푸른 빛이 대용을 감싼다. 대용의 몸 전체를 감싸는 푸른 빛. 그리고 빛이 사라지자, 대용의 모습이 조금 달라져있다. S#1에서 처용이 썼던 것과 같은 복숭아 나뭇가지로 장식된 관을 쓰고, 파란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대용. 얼굴에선 광채가 나고, 눈에선 빛이 뿜어져 나온다. 처용의 힘을 되찾은 대용. 전의 후줄근하고 흐리멍덩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S#25. 망해사 앞뜰 -새벽-

대웅전의 문이 열리고 대용이 걸어 나온다. 앞뜰에 서서 합장하듯 손을 모으는 대용. 그러자 그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다. 이내 하늘로 날아오르는 대용.

#### S#26. 울산 상공 -아침-

푸른 기운을 발산하며 울산 상공을 날고 있는 대용. 아래로 울산 공업단지와 높다란 빌딩들이 스쳐 지나가고, 저 멀리 동해의 푸른 바다도 보인다. 가지산이 보이자 서서히 하강하는 대용.

### S#27. 가지산 중턱 -아침-

땅으로 착지하는 대용. 대용이 도착한 곳은 역신과 영웅들 간의 전투가 벌어졌던 S20의 가지산 중턱이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는 대용. 하지만 역신과 역귀들은 보이지 않는다. 그때 조그맣게 들리는 신음소리. 대용이 얼른 고개를 돌려 보면, 태화가 땅에 쓰러진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뿜고 있다. 자의왕후 역시 그 옆에 처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다. 두 사람에게 달려가는 대용.

둘의 몸엔 붉은 두창 독이 번져있다. 손을 뻗어 푸른 기운을 뿜어내는 대용. 푸른 기운이 태화와 자의왕후를 감싸자, 이내 두 사람의 몸에서 두창 독이 사라진다. 정신을 차려 몸을 일으키고는, 각성한 대용을 발견하는 두 사람.

**자의왕후** 처용 처사.... 드디어 돌아왔군요.

**대용** (고개 끄덕여주고) 몸은 괜찮으신 겁니까?

**자의왕후** 예, 덕분에 씻은 듯이 나왔습니다. 헌데, 박제상 공은...?

**대용** (표정 어두워지는) 이 나라를 구해달란 말씀을 남기고... 떠나셨습니다.

**태화** (이를 악무는) 이런....

순간 숙연해지는 분위기.

**대용** 그리고 저는 박제상 아저씨가 부탁한 대로, 역신으로부터 이 나라와 이 세상을 구할 겁니다. (두 사람 보며) 저와 함께 싸워주시겠습니까?

**자의왕후** (고개 끄덕이며) 물론이지요, 처용 처사.

**태화** (처용 바라보고 씩 웃는) 이제야 좀 처용 같군 그래.

### S#28. 울산 시내 -아침-

울산 시내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다. 온몸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채 거리에 쓰러져있는 사람들, 모두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뿜는다.

평소대로라면 빠르게 달리고 있을 자동차들은 움직이지 않고 차도 위에 멈춰서있다. 차를 운전하던 이들 역시 모두 온몸에 붉은 반점이 오른 채 쓰러져 있다.

공중에 떠서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역신과 역귀 무리들. 그들은 재미난 볼거리를 구경하듯 연신 웃음을 터트리고 있다.

**역신** 역병이 창궐한 도시, 죽어가는 인간들, 거리에 늘어선 시체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인가! (역신들에게) 자, 어서 가서 더 죽이고, 더 병들게 하라!  
역귀의 세상을 만들어라! 이제 날 막을 자는 어디에도 없다!

역귀들            예, 역귀마마!

일제히 움직이는 역귀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푸른 불꽃이 날아와 역귀들을 덮친다.  
순식간에 세 마리의 역귀들이 불에 타서 사라진다.

역신과 역귀들이 고개를 돌려 보면, 태화와 자의왕후, 그리고 대용이 공중에 떠있다. 태화는  
소환한 독수리를 타고 있고, 자의왕후는 등에 달린 용의 날개를 이용해 하늘을 날고 있다.

대용            방금 널 막을 자가 없다고 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들었나?

역신            처용…. 그대로 도망쳤다면 목숨이라도 부지했을 텐데, 기어이 내 손에  
죽고 싶은 게로구나.

대용            (태화와 자의왕후에게) 우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피해서 싸웁시다.

고개를 끄덕이는 태화와 자의왕후. 세 사람은 등을 돌려 역귀들로부터 도망치기 시작한다.

역신            쫓아라!

공중을 날며 세 사람의 뒤를 바짝 쫓는 역신과 역귀들.

## S#29. 강동 주전해안 자갈밭 -아침-

빠르게 날아오다 갑자기 우뚝 멈춰서는 대용. 뒤따라 날아오던 태화와 자의왕후도 그를  
따라 멈춰 선다. 그들의 발밑엔 둥근 자갈들이 깔려있는 강동 몽돌해변이 보인다.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해변엔 사람들이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파도 소리와 파도에 부딪친  
몽돌이 굴러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이내 역신이 50마리쯤 되는 역귀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 대용과 동료들을 에워싼다. 공중에  
뜬 채 서로를 노려보는 두 무리들. 강동 몽돌해변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역신            (차갑게) 모조리 죽여.

명령을 기다린 듯, 일제히 튀어나가는 역귀들. 그 기세가 매섭다.

지팡이를 크게 휘두르는 태화. 그러자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가 나타나 역귀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고래가 꼬리를 한 번 휘두르자, 열 마리가 넘는 역귀들이 떨어져 나간다.

자의왕후는 용으로 변신해 불을 뿜으며 역귀들과 싸우고 있다.

한편, 대용과 역신은 다른 이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일대일로 맞붙고 있다. 대용이 푸른 불꽃을 쏘아내지만, 역신이 쉽게 막아내고 두창 독을 뿜어낸다. 몸을 틀어 피하는 대용. 둘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공격을 주고받는다.

**역신** 제법이구나, 처용. 하지만 그 정도론 내 적수가 되지 않는다!

**대용** 어이, 역신. 내가 힘을 전부 보여준 거라 생각해?

씩 웃고는, 역신에게 쏘살같이 날아가는 대용. 역신이 막을 새도 없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꽂아 넣은 뒤 발차기를 한 방 먹인다. 신음을 토해내며 도망가는 역신. 붉은 기운을 쏘아 대용의 시야를 가린다. 자신의 시야를 가리는 붉은 기운을 헤치고 역신을 쫓는 대용. 그런데 대용의 앞에 나타난 것은 역신이 아닌, 박제상이다. 공중에 우뚝 멈춰서는 대용.

**대용** (믿기지 않는) ...아저씨? 박제상 아저씨 맞아요?

**제상** (온화한 미소) 처용 처사, 역신은 도망갔소. 우리가 이긴 것이요.

**대용** (제상에게 다가가며) 아저씨. 정말,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대용이 제상의 앞으로 다가온 순간, 제상이 이를 드러내며 기괴한 미소를 짓는다.

**제상** (역신의 목소리) 멍청한 놈.

대용을 향해 붉은 기운을 뿜어내는 제상. 제상으로 변신했던 역신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대용은 붉은 기운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붉은 기운은 끈끈이처럼 대용의 몸에 들러붙는다. 그런 대용을 보며 웃음을 터트리는 역신.

**역신** 어디 한 번 맘껏 발악해봐라, 처용.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끈질기게 달라붙을 테니.

대용의 온몸을 휘감던 붉은 기운은 급기야 대용의 얼굴까지 뒤덮고 만다. 결국 정신을 잃고 마는 대용.

### S#30. 울산 앞바다, 개운포 (과거) -저녁-

S#1 마지막 장면과 이어지는 상황. 역신이 쏘아낸 붉은 기운이 처용을 덮치더니, 이내 온몸을 휘감기 시작한다. 이전 씬에서 대용이 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붉은 기운 안에 꼼짝없이 갇히고 만 처용. 발버둥 칠수록 붉은 기운은 점점 처용을 옥죄어온다. 고통스러워하는 처용. 하지만 정신을 잃지 않고, 머리에 쓴 관에 꽂힌 복숭아 나뭇가지 하나를 뽑아낸다. 복숭아 나뭇가지에 푸른 기운을 모아 검은색으로 변신시키는 처용. ‘이야아얍!’, 기합 내지르며 검은 휘둘러, 온몸을 휘감은 붉은 기운을 찢어버리는 처용.

### S#31. 강동 주전해안 자갈밭 (현재) -아침-

붉은 기운에 사로잡힌 채 정신을 잃었던 대용, 눈을 번쩍 뜬다. 이전 씬에서 처용이 했던 것처럼, 머리에 쓴 관에 꽂힌 복숭아 나뭇가지를 하나 뽑아내는 대용. 정신을 집중하자, 푸른 기운이 복숭아 나뭇가지로 모이더니 이내 검은색으로 변한다. ‘이얍!’, 기합을 내지르며 검은 휘두르는 대용. 그의 몸을 옥죄고 있던 붉은 기운이 찢어지며 공중으로 흩어진다. 그 모습을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역신.

역신                   …용케 빠져나왔구나.

대용                   그런 비겁한 수에 당할 수야 없지.

역신이 붉은 기운을 뽑아내자, 붉은 기운이 이내 검은색으로 변한다. 검은색 든 채 서로를 노려보는 대용과 역신.

한편, 역귀들과 싸우고 있던 태화와 자의왕후는 고전하고 있다. 태화가 소환해낸 고래는 역귀들의 맹렬한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고, 용으로 변신한 자의왕후 역시 스무 마리쯤 되는 역귀에게 둘러싸여 힘겨워하고 있다.

지팡이를 휘둘러 가까스로 역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태화.

역신과 대용은 검은 휘두르며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챙, 챙!’, 검은 부딪칠 때마다 파열음이 들리고, 불꽃이 튀어 오른다. 역신이 힘껏 휘두른 검은 가까스로 막아내며 뒤로 밀려나는 대용. 숨을 가쁘게 몰아쉬던 대용은 이내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한다. 그러자 그의 검은 푸른 기운이 모여들기 시작한다. 눈을 번쩍 뜨고는 다시 역신에게 날아가는 대용, 푸른 기운이 서린 검은 크게 휘두른다. 역신이 얼른 검은 들어 막아내지만, 대용의 검은 역신의 붉은 검은 베어내고 역신의 몸까지 베어버린다. 울컥, 검은색 피를 토해내는 역신. 대용이 한 번 더 검은 휘둘러 역신을 베어낸다.

역신 (고통스러운 비명) 으아아악! 처용... 처용, 네 이놈!

역신의 몸이 가루처럼 부서지며 공중으로 흩어지기 시작한다.

역신 두고 보자, 처용. 언젠가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대용 다시 돌아오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맞서 싸울 것이고, 끝내 너를 막아낼 것이다.

역신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으아아아-

남아있던 역신의 몸이 모두 부서지며 허공으로 흩어진다. 형체도 없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역신.

태화와 자의왕후를 공격하던 역귀들도 공중으로 흩어져 사라져버린다. 그제야 숨을 돌리는 태화와 자의왕후.

대용이 그들과 마주 보며 미소 짓는다.

### S#32. 울산 시내 -아침-

울산 시내에 질게 깔려있던 붉은 안개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몸에 퍼져있던 붉은 반점도 사라진다. 거리에 쓰러져있던 사람들, 하나둘씩 정신을 차리고 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내가 왜 쓰러져 있었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 울산 시내에는 이내 다시 활기를 되찾는다.

### S#33. 강동 주전해안 자갈밭 -낮-

몽돌해변에 서있는 태화, 자의왕후, 그리고 대용. 자의왕후와 태화가 바다를 향해 걸어간다.

자의왕후 (대용에게) 처용 처사.... 우린 이제,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대용 (고개 숙여 인사) 함께 싸워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무릎을 구부려 인사하는 자의왕후.

태화 잘 싸웠소, 처용. (손 내밀어 악수 청하며) 당신이 이 세상을 구한 거요.

**대용**                    아니요. (태화의 손 맞잡으며) 우리가 구한 거죠.

마주보며 씩 웃는 태화와 대용. 태화는 대용의 손을 놓고, 지팡이를 휘둘러 고래를 소환한다. 고래의 등에 오르는 태화. 자의왕후는 손을 모아 용으로 변신한다. 고래를 타고 바다 속으로 사라지는 태화. 용이 된 자의왕후 역시 바다 속으로 뛰어든다.

홀로 해변에 서있는 대용. 두 영웅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다가 기분 좋게 미소 짓는다.  
대용의 얼굴에서, 페이드아웃.

### S#34. 대용의 방 안 -낮-

페이드인.

대용이 서울에 가기 위해 썼던 짐들을 다시 꺼내고 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대용모.

**대용모**                    울산 뜬다 카더라... 갑자기 마음이 바뀐 이유가 뭐고?

**대용**                    (짐 정리하다가 돌아보며) 울산에 남아서 할 일이 있어.

### S#35. 울산, 은행 -낮-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은행. 창구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보이고, 대기표를 손에 들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인다.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리.

**강도1(소리)**            전부 옆드려!

복면을 뒤집어쓴 강도 세 명이 은행 안으로 뛰어 들어온다. S#4에서 대용의 앞을 지나쳐간, 그 강도들이다. 강도2의 손엔 총도 한 자루 들려있다.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옆드리는 직원과 손님들. 자루를 들고 있는 강도3은 창구로 걸어간다.

**강도3**                    (창구 안의 직원에게) 어이, 여기 돈 좀 담아줘야겠어.

하는데, 그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대용(소리)**            잠깐.

얼굴에 처용탈을 쓴 사내가 은행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대용이다.

**대용** (걸어오며) 왜 인간의 모습을 한 놈들이, 역귀 같은 짓을 벌이는 거냐?

**강도1** (비웃으며) 애 뭐라는 거냐?

대용에게 달려드는 강도1. 하지만 대용이 내지른 주먹을 맞고 한 방에 나가떨어지고 만다.  
바닥에 널브러져 기절하고 만 강도1.

**강도2** (놀라는) 이놈이….

강도2가 대용을 향해 총을 겨누지만, 빠르게 움직여 총을 빼앗아 버리는 대용. 총을 휘둘러 강도2를 때려눕혀 버린다. 대용, 마지막으로 남은 강도 한 명을 처치하려는데… 강도3은 은행 밖으로 도망쳐 버린다. 뒤쫓아 나가는 대용.

### S#36. 울산 시내, 골목 -낮-

도망가던 강도3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다. 뒤를 돌아보면, 처용탈을 쓴 대용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바닥에 놓인 유리병을 집어 대용에게 던지는 강도3. 대용은 푸른 기운을 쏘아 유리병을 공중에서 터트려버린다.

**강도3** (겁에 질려 덜덜 떠는) 너… 너 정체가 뭐야?

**대용** 나? (처용탈 벗으며 히죽 웃는) 처용이다, 임마.

히죽 웃는 대용의 얼굴에서, 화면 서서히 암전된다.

<처용이 돌아왔다>, 끝.